



우린 조금 더 특별한 날을 기대하며
아껴두는 것이 많습니다.
멋진 옷, 여행의 기회,
그리고 어쩌면 오랫동안 소망해 온
꿈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이제 아끼지 마세요.
오늘만큼 특별한 날은 없으니까요.
주택연금이 당신의 '오늘'에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특별하기를 바라며
늘 동행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노후행복편지 ♥ 주택연금

시니어라이프 종합 매거진 Vol. 17

당신에게, 성금

희망이 되는 이름, 서진규

그곳에서, 두근

세 가지 즐거움, 정선의 여름

우리 오늘, 선뜻

여름철 일사병과 열사병 주의보

내일 더욱, 반짝

용기를 수료 받은 사람들



당신에게
도착한

두 번째
계절

|



〈주택연금〉여름호가
여유와 행복을
한가득 담아
당신에게 선물을 전합니다.
느긋하게 즐기는
자유시간, 준비됐나요?

C O N T E N T S



생글생글 여름이 주는 웃음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온전한 삶이라고 여겼던
생각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쉼 역시
목표가 된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때론 한 걸음 느리게
천천히 둘러보는 것,
휴식을 누려보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가치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잠깐만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디게 걸어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04 여름의 초대장 | 한국노인복지학회 박창제 회장

당신에게
성큼

06 주택연금이 만난 '꿈꾸는 시니어' | 희망이 되는 이룸, 서진규
10 테마 이야기 | 시니어 산업의 개막
12 HF 초점 | 내집연금 3종세트, 묻고 답하기

그곳에서
두근

14 어떤 날, 어떤 하루 | 세 가지 즐거움, 정선의 여름
18 문화를 읽다 | 브라운관, 시니어를 담아내다
20 집이 완성한 가치 | 전원주택

우리 오늘
선뜻

24 세계는 100세 시대 | 캐나다의 탄탄 연금
26 건강의 정석 | 여름철 일사병과 열사병 주의보
28 바른 머니 사용법 | 은퇴자를 위한 절세 계획

내일 더욱
반짝

30 HF 시선 | 용기를 수료 받은 사람들
32 HF 소식 | 오늘의 주택금융공사
33 시니어 이모저모 | 정보 및 문화이벤트 안내
34 찾아가는 독자평가회 | 강표노 고객

발행일 2016. 6. 1 **발행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등록번호 부산남. 바00004 **발행인** 김재천 **편집인** 류기윤 **기획** 김종민 김진숙
에디터 제민주 신유경 윤망울 **디자인** 이영환 우선정 **사진** 한수홍 김재경 **일러스트** 김동희
인쇄·제작 효민디앤피 Tel. 051. 807. 5100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공기업입니다.
주택연금 소식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주택연금-주택연금 홍보관'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휴식休息을 꿈꾸자

글_ 박창제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휴식은 국어사전에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쉰다’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여건과 취향, 선호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노년학에선 진정한 휴식이란 생계를 위한 고된 일을 멈추고 하고 싶은 사회참여활동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꾀하고 필요한 기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존 러벅이라는 시인은 “휴식은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여름날 나무 아래 잔디에 누워보고, 물의 속삭임을 듣기도 하고, 하늘 위를 가로질러 떠다니는 구름들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자녀양육부담과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삶의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진다. 특히 산업화, 민주화, 외환위기 등 경제의 변화 속에서 국가와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충분한 휴식을 누릴 자격과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진정한 휴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가활동 참여율이 27%에 지나지 않았고, 참여자의 여가활동도 TV시청, 라디오 청취, 산책 등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2013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가입한 사회단체가 전혀 없는 55세 이상 고령자는 51.3%에 이른다. 오히려 노년기에도 휴식보다는 일이 중심이었는데, 55세 이상 고령자의 약 48%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30%나 된다. 이런 상황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휴식이나 여가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경험할 기회가 적은 탓도 크다고 볼 수 있다.

통상 노인의 4가지 고통으로 ‘빈곤, 불건강, 무위(역할소외), 고독’을 꼽는다. 대부분 사람들은 4고(苦) 중 빈곤과 건강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시니어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빈곤이나 건강문제가 아닌, 무위와 고독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좋은 휴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휴식을 낭비라고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휴식이 생의 즐거움을 재창조한다고 본다. 또한 휴식은 어릴 때부터 생활의 중요한 일부이자 행복의 진정한 원천으로 인식된다. 취미·문화·예술·종교 등 다양한 활동을 진정한 휴식이라고 생각해 자기 역량과 선호에 따라 즐겁게 참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은 노년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특별히 고독과 무위가 늘어나 우울증 등을 겪을 일도 적다. 노년기는 노동활동 중심에서 여가활동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사회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압박감이 높았던 노동에서 벗어나 기분 좋은 여가활동으로 전환된 삶이 안녕감이나 삶의 만족도를 더욱 끌어올리기까지 한다.

노년기는 새로운 삶의 전환기다. 이 시기는 생애 어느 시기보다 시간적 여유와 공간 또한 많다. 치열한 경쟁심에서 벗어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평화로운 시기이기도 하다. 심표와 느낌표로 자신을 뒤돌아보고 주변을 살피며 생의 의미를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다.

영화 <버킷리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천국의 입구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한다. 너는 삶의 기쁨을 찾았느냐? 너의 삶이 남에게 기쁨이 되었느냐?”

이 영화의 줄거리는 두 노(老) 주인공이 원하는 여가를 함께 하면서 진정한 휴식을 즐기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은 두 가지 질문에 기쁘게 답할 수 있게 되고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한다. 노년기 삶에서 기쁨을 찾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주는 것은 영화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좋은 휴식을 향유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더 나아가 생을 마치는 날에는 천상병 시인의 유명한 시구,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인생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희망이 되는 이름, 서진규

글_ 제민주

서진규의 이름 앞에는 소장, 박사, 소령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흡족해하는 수식어는 단연 '강연가'다. 막힘없이 전달되는 그녀의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귀를 사로잡고, 이내 마음마저 사로잡는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 하지만 그 시간이 허투루 보낸 세월은 아니었음을 그녀의 현재가 증명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는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그 자체로 '도전'과 '용기'의 동기부여가 된다. 밝은 에너지를 가득 품은 그녀와의 만남은 내내 긍정의 기운 속에서 이뤄졌다.



서진규

● 2,300여 차례의 강연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게 된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어디에 사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알 순 없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서진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청중은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녀의 진실된 이야기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던 자신만의 삶, 그것에 대한 포기않는 열정이 바탕에 들어있었다.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가난한 집안 형편과 거기에 더해진 딸의 서러움, 그런 그녀에게는 매일 수북하게 쌓인 빨랫감이 숙제고 일과였다. 한겨울에도 직접 얼음장을 부순 후 개울에서 가득한 양의 빨래를 해야 했던 서진규는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제 인생을 바라보면 참 갑갑했어요.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수학 문제 푸는 걸로 해소하면서 지냈어요. 수학에는 늘 답이 나오잖아요. 풀리는 문제들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풀었는데, 이게 제 삶의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몰랐어요.”

미국에서 시작한 결혼생활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도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일렁일 때, 그녀가 선택한 곳은 바로 미군 자원 입대였다. 영어회화 실력은 어설프으나 입대 시험에 출제된 수학문제만큼은 자신 있었다. 제대로 실력 발휘를 했고,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입대가 확정되었다. 당시 그녀의 일화는 부대 내에 소문이 자자했다.

“입대 전 태어난 딸이 눈에 아른거렸어요. 하지만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곳에서의 시간을 포기할 순 없었죠. 돌아가면 이전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용기 있는 엄마의 모습으로 변해서 돌아가고 싶었어요. 체력적인 부분은 동기 여군들에 비해 약했지만 저는 저만의 강점을 찾았고, 그걸로 서로 윈윈(win-win)했죠.”

자유분방한 삶에서 자라온 미국 여군들은 체력은 타고났을지 몰라도 각 잡힌 군대식 삶엔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반면 그녀는 체력은 뒤처졌지만 어릴 적부터 몸에 배인 규칙적인 생활태도는 그 누구보다 우수했다. 살아남아야겠다는 의지, 반드시 끝마치겠다는 오기가 그녀를 버티게 한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동료들 사이에 존재 하던 벽을 허무는 힘으로 작용했다.



● 서진규에게 딸은 그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다. 언제나 딸에게 최고이자 멋진 엄마가 되고 싶었다던 그녀. 딸은 그런 엄마를 깊이 이해했고, 존경했다. 그녀의 딸 조성아 씨 역시 하버드대를 졸업한 후, 미군 소령으로 전역한 이력을 가졌다.

누군가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을 남겼다. 그렇게 그녀로부터 선택된 다양한 상황은 서진규라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채워나갔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건 분명 그 숏한 선택들 가운데서도 빛나는 선택이었다. '터닝포인트' 중의 '터닝포인트'로 작용했던 그때가 있었기에 비로소 지금의 서진규가 희망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녀와의 대화 중 가장 인상적인 문장은 '이렇게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말은 심장을 뜨겁게 만들기 충분했다. '그런데 왜 내 운명을 내가 불행하게 만들어야 하죠?'. 그 되물음 뒤에는 많은 생각이 따른다. 위대한 사명을 가지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서진규. 그녀는 자신을 통해 누군가의 삶이

바뀌고, 그 바뀐 삶이 또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심어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IMF가 지나가고 몇 년 후에 <MBC 일요스페셜>이라는 방송에 출연하게 됐어요. 자고 일어나니 다른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말이 딱 이때를 두고 한 말 같았죠. 그날 방송 이후 강연 요청이 쇄도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내 이야기였고,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니까 한번 해보자 싶었어요."

그렇게 첫 강연에 오를 때가 그녀 나이 50대였다. 강연가라는 새로운 직업이 그녀의 생애에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 그간 억울했고 비참했던, 그래서 서러웠던 그녀의 세월은 현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이 드러났다. '정의의 사도'라는 꿈을 남몰래 간직하고 성장했던 어린 소녀의 바람은 '강연'이라는 도구를 통해 많은 이들을 구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자살을 결심한 어느 훈련병이 있던 부대에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냥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그 강연을 듣고 훈련병 마음이 돌아섰대요. 나중에 그 친구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때 정말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 외에도 남편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던 가정주부가 그녀의 강연을 듣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기도 했다. 지난 십수 년간 약 2,300여 차례의 강연을 진행해오며 그녀를 통해 새로운 꿈을 꾸게 된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어디에 사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알 순 없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서진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청중들은 스스로를 그 속에 투영했고, 비춰진 그 모습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는 것. 용기를 전한 강연자도 훌륭했지만 그 좋은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낸 수많은 청자들 역시 훌륭했다. 최고의 만남이었던 셈이다.

꿈꾸기 좋은 시기, '지금'

"많은 시니어들이 꿈을 포기해요. 대부분 '이제는 좀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었으니 쉬어야겠다는 생각은 꿈으로 볼 수 없어요. 무언가가 하고 싶어야죠. 그게 꿈이고요. 거창한 것만 꿈은 아니에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요?" 강연을 시작한 초창기, 1999년 무렵이었다. 그녀에게 70대 남성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우연한 계기로 서진규의 강연을 들으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꿈

을 한 가지 꾸게 되었는데, 그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었다고. 자신의 각오를 꿈의 동기부여자인 서진규와 공유하고 싶었다던 그 남성과는 정확히 10년 후 그녀의 강연에서 재회했다. 80대에 접어들었지만 60대 못지않은 모습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던 남성. 그와의 만남은 서진규의 강연 인생에 두고두고 기억되는 만남이 되었다. 어디를 가든 이 이야기를 나누며 꿈과 나이는 무관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했다.

"항상 어떤 상황 앞에서는 '긍정적인 나'와 '부정적인 나'가 출현해요. 내 속의 두려움들이 나를 망설이게 만들고 주춤거리게 할 때, 용기 있게 긍정적인 나를 불러내야 해요. 이걸 기억한다면 나이들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노후는 늘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하지 않을까요?"

서진규가 전하는 메시지는 거창한 내용이 아니다. 막연한 조언도 아니다. 그녀가 살아냈던 삶, 그 자체이자 그녀가 오롯이 견뎌내며 확인한 결과였다. 그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당당한 이름으로 남고 싶었다던 서진규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청중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로 진화했다. 정의의 사도라는 꿈도 이뤄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스스로에게 정의로운 이름이 되기를 바란다.' 그녀가 남기는 메시지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말하던 희망일지도 모른다.

고령화를 기회로, 시니어 산업의 개막

글 윤망울

‘시니어 산업’을 통해 시니어들이 보다 편안하고, 건설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되고 있다. 위기라고 생각했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니어 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종류 또한 시니어들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고령층, 그들의 쾌적한 노후를 위해 진화하고 있는 시니어 산업을 짚어본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위기를 넘어 기회로

유엔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화 사회’라고 분류한다. 현재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속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비단 사회적 위기뿐만 아니라 인식할 것은 아니다. 구매력을 갖춘 중장년 및 시니어 인구 증가가 시니어 산업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 서비스 등 관련 산업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 시장은 2015년 39조 원에서 2020년에는 73조 원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단순히 시니어 인구의 양적 증가를 넘어, 적극적인 소비성향을 보이는 ‘액티브 시니어’의 증가가 시니어 산업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6 한국 시니어산업 대상’

점점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 시니어 산업의 전망은 ‘2016 한국 시니어산업 대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행사는 동아일보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2016년

한 해 동안 시니어 산업의 분야별 우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만족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브랜드를 공모, 선정해 발표하는 자리로, 우수 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장려하기 위해 열린다.

올해는 주거, 의료, 여가, 금융, 생활 부문 등에 걸쳐 총 27개 기업, 28개 브랜드가 선정됐다. 국내 최초로 ‘시니어’라는 단어를 사용한 미디어이자, 시니어 교육 콘텐츠 발굴에 집중하고 있는 리봄, 크루즈CCK의 사랑의 유람선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고령층 증가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헬스케어, 의약품 외에 시니어 교육부터 여가활동, 여행 등의 다양한 부문의 기업들이 수상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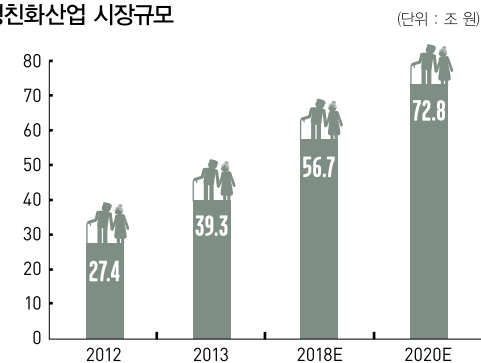
시니어 산업, 국가적 차원의 과제

이처럼 세분화된 영역으로 발전하는 시니어 산업들은 시니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한편,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향후 국내 시니어 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에이징과 손주 비즈니스 등이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6 한국 시니어 산업 대상’ 부문별 대상

부문	회사(기관)	브랜드	선정이유
고급 자동차	현대자동차	아슬란	뛰어난 정숙성 및 승차감
헬스케어	파나소닉코리아	리얼프로-조바	하리디스크 완화에 효과
기능성 신발	RILA RILA	RILA RILA	고객에 맞는 풋 컨설팅 서비스
일반의약품	한림제약	호르반	만성피로 개선에 효과
크루즈 여행	크루즈 CCK	사랑의 유람선	시니어에 맞는 편안한 시스템
교육 정보 서비스	리봄	리봄	시니어를 위한 콘텐츠 개발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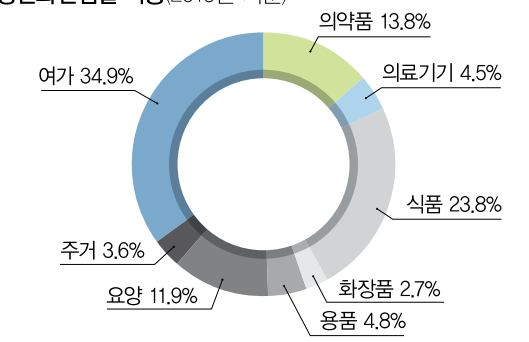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회,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시니어 산업은 시니어들의 편의 충족이라는 한 가지 목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시니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한 실버산업의 투자 무대로 각광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작년 60세 이상 인구는 2억 2,182만 명, 전체인구의 16.2%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시니어 산업의 가속화로 이어져, 시니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스마트워치, 복합유통센터, 플랫폼 구축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외에 미국, 일본 등에서는 시니어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 기관, 전담기구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다 많은 기회와 도전을 안겨주는 시니어 산업, 국가의 내수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 기업 등이 서로 연계해 앞으로도 시니어들이 만족할 수 있는 브랜드를 창출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령친화산업별 비중(2015년 기준)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회,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내집연금 3종세트 묻고 답하기

정리_ 주택연금부

지난 4월 25일 출시된 '내집연금 3종세트'는 고령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출시 후 꾸준한 인기를 더하고 있다. 내집연금 3종세트에 대한 관심 만큼이나 궁금증 또한 다양하다. HF 초점에서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5가지 Q&A를 준비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Q 주택연금으로 상환가능한 담보대출 범위와 금액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범위는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자리론·디딤돌대출도 포함)에 한합니다.
※ 불법사금융과 개인 간 대여금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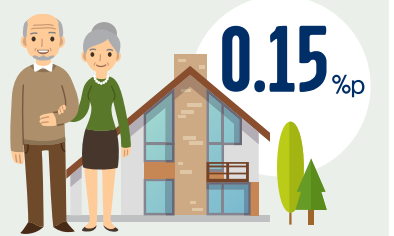
최대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70%입니다.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 대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인출한도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금액(최대 1,000만 원)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 이용가능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증자리론

Q 기존의 보증자리론을 사용하던 사람도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증자리론 가입이 가능한가요?

기존 상품을 상환하고 사전예약 보증자리론에 가입하면 기본 우대금리 0.15%p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보증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Q 우대형 가입 이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매월 받는 월지급금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하지만 추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면 월지급금은 당초 수준으로 재조정됩니다.



Q 주택이 2채 이상, 합산가격 1.5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한가요?

부부기준 1주택자만 대상입니다.
※ 합산가격 1.5억 원 이하라도 다주택자인 경우 가입 제한

Q 1.5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우대형으로만 가입 가능한가요?

1.5억 원 이하 1주택자는 경제적 상황에 맞게 상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시 주택가격 1억 원, 70세 가입자의 경우

• 우대형 주택연금 더 많은 월지급금이 필요한 경우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선순위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일반 주택연금	324 천 원	우대형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45 %
우대형 주택연금	355 천 원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70 %



세 가지 즐거움 정선의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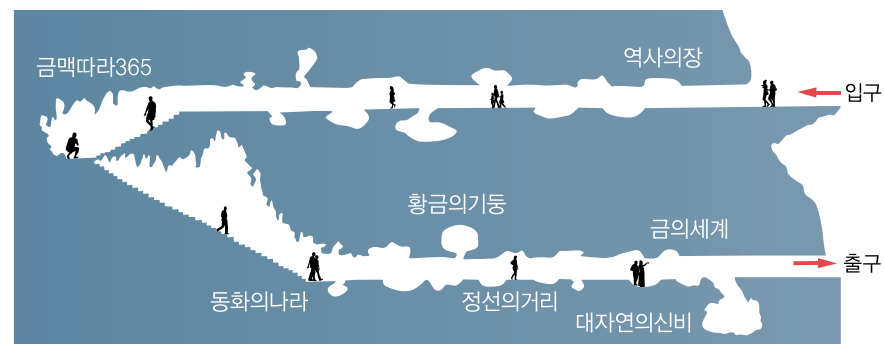
글_ 제민주

본격적인 여름이 빠끔히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높아진 습도와 뜨거워진 온도는 이번 계절에도 열대야의 방문을 짐작케 한다. 1년 내내 서늘한 기운이 가장 많이 감돈다는 강원도 여행은 그래서 더욱 찾아가고 싶은 시간. 무더위를 날려줄 동굴 여행과 시끌벅적한 활기 속에서 펼쳐지는 전통시장 풍경, 그리고 자연을 온몸으로 맞는 레일바이크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자. 강원도 정선에서 누리는 세 가지 즐거움이 이 여름을 시원한 행복으로 물들이는 세 가지 이유가 되어줄 것이다.



화암동굴

- 주소 :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 문의 : 동굴 033-560-3415
모노레일 033-560-3429
- 운영 : 9시~17시까지 입장가능



볼거리 풍성한 테마형 관광지, 화암동굴

강원도의 동굴 가운데서도 화암동굴은 국내 최초 테마형 동굴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특별하다. 화암관광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와 주변 관광, 식사, 숙박까지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석회석 자연동굴인 화암동굴은 금을 채광하던 옛 광산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연해 볼거리와 역사적 가치도 두루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학습장. 상부와 하부 갱도가 이어진 곳의 길이는 약 90m로, 이곳에는 365개의 계단을 설치해 가까이에서 종유석과 석회석을 관찰할 수 있다. 1,803m에 달하는 화암동굴 내부를 모두 둘러보기 위해선 약 1시간 3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매표소에서 동굴 입구까지 도보 이동

시간이 꽤 소요되므로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테마형 동굴답게 이곳에서는 5개의 테마공간이 각각의 특징을 갖춰 조성되었다. 첫 번째 공간인 '역사의 장'에서는 실제 금광맥과 광산 개발 당시의 모습을 시물레이션으로 만날 수 있다. 이어 '금맥따라 365'에서는 천정에 매달린 석화를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코스는 첫 번째 공간과 세 번째 공간인 '동화의 나라'를 이어주는 약 220m 길이의 회전 계단길이기도 해 아찔한 즐거움이 펼쳐진다. 세 번째 공간은 테마명을 고스란히 살린 환상의 동화속 세상. 도깨비들의 안내를 받으며 금광 구경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이 코스에서 특히 어린 관광객의 환호소리가 가장 많이 들린다.



- 01 강원도 지방 특산물을 팔며 지역의 향수까지 담으로 느끼게 만드는 정선5일장
- 02 시장 앞 공연장에서는 각종 공연이 끊이질 않는다.
- 03 장 구경 중 허기진 배를 달래기에 좋은 먹거리 코너

정선5일장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을 봉양7길 39
- 문의 : 정선군종합관광안내소 1544-9053
정선아리랑시장 상인회 033-563-6200



네 번째 공간 '금의 세계'로 진입하면 눈부신 금빛이 눈을 황홀하게 사로잡는다. 이곳에서는 황금이 생성되는 과정을 영상물로 만나볼 수 있고, 동굴 벽면에 쓰는 황금 조명 아래에서 화암동굴만의 특별한 기념사진도 남길 수 있다. 마지막 공간인 '대자연의 신비'에서는 대형 크기의 석주와 석순이 그 웅장함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 높이 8m, 둘레는 5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규모는 대자연의 경이로움 그 자체. 일 년에 평균 0.1~0.2mm 씩 자라기 때문에 100년 기준으로 1~2cm 정도 길어지는 중유석과 석순의 성장을 이해한다면, 이 아득하고 거대한 위엄 앞에 압도당하는 건 시간문제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성장을 멈추지 않았던 동굴 속 크고 작은 생명체들의 움직임을 통해 숭고한 신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신명나는 북적거림, 정선5일장

1966년부터 이어진 정선5일장은 2와 7로 끝나는 날마다

열린다. 이날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 5일마다 열리는 정선만의 잔치로 자리 잡았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시장의 의미가 여전히 살아있는 정선5일장은 그래서 500년 역사의 명맥을 잇는 소중한 장소가 된다.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장으로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 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지난 4월 2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손님맞이에 나선 올해 장은 반세기 동안의 시장을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해보다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지난해에만 약 67만 명의 관광객이 정선5일장을 찾았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터. 그래서 정선군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로 손님 공략에 분주하다. 강원도에 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채소와 곡물 등의 특산물로 손님 발길을 끄는 건 물론, 거기에 넉넉한 인심까지 더해져 마음까지 사로잡는다. 안 사도 좋으니 일단 맛부터 보라는 상인의 구수한 사투리는 오고가는 이들에게 따스한 시장의 정을 느끼게 만든다.

- 01 가족 또는 친구들과 단체로 즐기 좋은 4인승 레일바이크
- 02 한류음식점과 카페로 구성된 '여치의 꿈' 이곳은 출발역인 구절리역에서 만날 수 있다.
- 03 종착역인 아우라지역에 도착하면 천연기념물 259호 여름치를 형상화한 열차카페가 기다리고 있다.



정선레일바이크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노추산로 745 • 문의 : 코레일관광개발 033-563-8787
- 운영 : 8시~18시까지 입장가능 • 홈페이지 : www.railbike.co.kr

사람들의 싱글벙글한 표정과 신명나는 북적거림으로 가득한 시장에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건 즉석에서 맛보는 음식. 강원도하면 떠오르는 특산물 '곤드레'로 만든 나물밥은 허기진 배를 달래기에 최고의 메뉴로 손꼽힌다. 고소한 양념장을 곁들여 비벼 먹으면 든든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된다. 인근 관광지 중 화암동굴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 역시 5일장이 들어서는 곳에서부터 운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자. 정선5일장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여치와 여름치가 꿈꾸는 길, 정선레일바이크

구절리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의 7.2km 거리를 운행하는 레일바이크는 주변 경관을 자신만의 속도로 구경할 수 있다는 특별함 때문에 많은 이들이 즐기는 장소다. 구절리역의 거대한 여치 모양 건물에는 음식점과 카페가 들어서 있어 본격적인 여행을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레일바이크 코스는 큰 무리 없이도 이동이

가능해 가족 단위의 여행객도 수월히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운영하는 정선레일바이크는 2인승과 4인승 두 기종으로 운영되며, 약 40분간의 운행 시간 동안 정선 일대를 풍성하게 감상할 수 있다. 이동 중간 지점마다 위치와 거리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어 자신의 현재 위치와 남은 거리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췄다.

종착지인 아우라지역에는 두 마리의 큰 여름치가 수고한 여행객을 반긴다. 여름치 모양을 형상화한 건물은 '여름치 유혹'이라는 이름의 열차 카페로 이용된다. 관광의 노곤함을 달래줄 이곳에서는 재미있는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기는 이들, 간단한 먹을거리로 심심한 입을 달래는 이들 등 쉬어가는 여행객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곳까지 두 발로 직접 이동했다면 돌아가는 길은 풍경열차를 타고 보다 편안하게 왔던 길을 둘러볼 차례. 거슬러 올라가는 풍경열차는 레일바이크 운행 종료 후 승차 안내방송에 따라 탑승할 수 있다.

브라운관, 시니어를 담아 내다

글_ 제민주

시대를 반영하는 매개체로 영상물만 한 것이 또 있을까. 시청자는 하나의 작품을 통해 그 시대가 바라보는 시선을 공유하고 또한 공감할 수 있다. 시니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드라마 등의 영상매체에서 그려내는 이들의 모습 역시 변화를 맞았다. 수동적인 모습보다는 진취적으로 노후를 채우는 모습이 이야기 전개의 중심축으로 들어선 것. 조연으로 다뤄진 시니어 캐릭터가 주연으로 부상하기까지, 그 흐름을 짚어봤다.



전형적인 틀 안에서 일상의 평범함을! _ **田園日記** MBC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영되며 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은 전원일기. 이 드라마는 시골풍경의 정겨운 모습과 가족애의 따뜻함을 전하며 전통적인 한국 가족상을 그려냈다. 전원일기 속 시니어의 모습은 보수적이고 수동적이다. 한복을 입고 쪽머리를 곱게 한 할머니는 명심보감을 즐겨 읽었고,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는 무뚝뚝하지만 성실한 태도로 일터를 오고갔다. 며느리도 마찬가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남편을 공경하며, 자식에게는 늘 헌신적이면서도 때론 엄격했던 전형적인 우리네 어머니였다. 이는 당시 시대가 이해하고 있던 부모상이자, 시니어를 그려낼 수 있는 의식의 한계점이기도 했다.

변화, 그리고 도전의 영역으로 들어선 시니어 _ **엄마가 외친다** KBS2

‘한 남자의 아내, 삼남매의 엄마가 아닌 이젠 나로 당당히 살자!’ 엄마가 외친 이 한마디가 드라마의 큰 줄기다. 주말드라마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이 작품은 전국 엄마들의 숨겨둔 본심을 일깨우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가족 뒷바라지만 하던 엄마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던 ‘자아 찾기’를 시원하게 그려낸 것. 작품의 절정은 단연 ‘뿔난’ 엄마가 ‘독립’을 외치는 부분이다. 주부라는 자리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 갖기를 실현한 엄마의 모습은 통쾌함과 몽클함을 동시에 안겼다. 고정관념에 대한 반기이자, 초로의 여성이 꿈꾸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시청자가 함께 공감하고, 또한 응원했다는 점에서 시니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나이만 조금 많을 뿐, 인생의 주인공은 여전히 나니깐 _ **마이프렌즈** tvN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중장년 배우들이 출연해 즐겁게 황혼기를 누리는 인물들을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다. 이야기의 중심 키워드는 ‘황혼 청춘’. ‘나이 들었다는 건 곧 인생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라는 대답을 내놓는다. 나이만으로는 가늠할 수 없고, 계산될 수도 없는 그들의 치열한 의지를 에피소드로 풀어냈다. 가족이라는 존재와 늘 함께 버무려지던 시니어의 위치는 이제 단독적인 모습으로도 충분히 그려낼 수 있는 소재가 됐다. 작품을 통해 나이의 무색함이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반가울 따름이다.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다. 시니어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다는 건 그만큼 나이에 대한 생각이 변화했다는 뜻이며, 더불어 젊음으로 대변되던 청춘이라는 단어를 향한 고정관념이 달라졌다는 의미였다. ‘황혼’이지만 ‘청춘’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삶에 대한 가치는 연령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방증한다. 무수히 긴 세월을 온몸으로 부딪치며 살아온 시니어, 그들이 지닌 가치의 무게를 인정하고 나아가 존중하는 현재의 흐름은 환영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시니어는 한 칸 옆으로 제쳐둬야 할 존재가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는 간극을 함께 좁혀나가는 벗이 되어야 한다. 브라운관에 번지고 있는 시니어를 향한 진보적인 시선을 앞으로 더 많은 작품에서 만나길 바라본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전원주택

글_ 신유경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도 커졌다. 특히 젊은 시절을 치열하게 살아낸 시니어들에게 전원주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삶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더욱 뜻깊을 수밖에 없다. 집이 완성한 가치 그 두 번째는 바로 자연 속의 내 집, '전원주택' 이야기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전원주택으로 시작하는 인생 2막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로망이다. 주말이 되면 산과 들, 바다로 향하는 행렬만 봐도 그렇고, 멋진 풍경이 펼쳐진 전원주택에서의 노후를 꿈꾸는 것도 그렇다. 실제로 자연으로 터전을 옮기는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경우 2010년 4,067가구였던 것에 비해 2011년 1만 503가구, 2012년 2만 7,008가구로 매년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가 바로 50대와 60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주거특성 분석 및 시사점' 조사 결과 42.9%의 시니어들이 은퇴 후 전원주택에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는 오랜 세월 답답한 도시에 지친 시니어들이 자연 속에서 노년의 여유로운 삶을 구상하는 것. 빼곡한 빌딩이 보이는 창 밖 풍경 대신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의 피로를 덜고 자신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
전원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집에 자신의 생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맞게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공간,
이곳을 시니어들의 새로운
출발지로 삼는 건 어떨까요?
”



사진제공_ (주)하우스톡

전원주택 전문 건설업체 (주)하우스톡 김강일 대표이사는 “전원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집에 자신의 생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맞게 집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파트나 빌라 등 모듈주택의 경우 가족들의 라이프스타일 및 가구 등을 집에 맞추어 살아야 했으나 전원주택은 가족들의 라이프스타일이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전원주택은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꿈을 현실로 실현한 시니어들의 인생 2막의 출발점인 셈이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 고려할 것, 토지매입에서 시공까지 흔히 전원주택이라 하면 푸른 잔디가 깔린 넓은 정원 한가운데 우뚝 선 으리으리한 이층주택을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꿈에 불과하다. 이

러한 고급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엄청난 난방비와 조정관리, 보수비용 등은 여유는커녕 마음의 짐을 더하기 쉽다. 게다가 전원생활이 누구에게나 좋을 수도 없는 일이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세주택을 활용해 1~2년 지내면서 전원생활의 장단점을 직접 체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토지 매입인데,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 매입하는 것이 좋다. 너무 큰 집이나 땅은 관리가 어렵고 유지비용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속 있는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가족 수에 맞는 소형주택을 짓는 것이 관리하기도 쉽고 지출도 줄일 수 있다.

토지를 매입할 때는 단순히 위치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주변여건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주)하우스톡 김강일 대표이사는 “토지 매입 시 사려고 하는 땅이 도로 및 하수관로 인공수로나 부지 포함 및 기반시설과 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상수도나 도시가스가 없을 경우에는 지하수를 천공하여 대체하는 방법과 LPG가스 사용방법 등이 있는데, 도로 및 기반시설이 땅에 접하지 않으면 도로와 맞닿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가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하수관로 굴착에 대한 각각의 토지주에게 사용승낙서를 일일이 받으러 다녀야 하는 수고로움을 각오해야 한다. 이때 건축설계사를 동반하면 이런 부분을 따져볼 수 있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을 지을 때도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전원주택은 짓는 공법과 자재 등에 따라 구분되는데, 크게 철근콘크리트주택, 목조주택 경량목구조, 벽돌주택 조적, 벽체구조주택 ALC블록구조, 스틸하우스 경량철골조 등으로 나눈다. 어떤 공법으로 지을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는 것이 좋은데, 최근에는 목조주택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가벼운 나무를 골조로 하여 집을 짓는 형태로 공사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외관, 높은 공간 효율성 등이 장점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빈 땅에 신축하는 것이 자신 없다면 기존 집을 개·보수하는 방법도 있다. 농가 주택을 매매해 리모델링하는 방법인데 전기와 상하수도 설비, 도로를 내는 등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등기가 된 집인지, 집과 대지의 소유주가 동일인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동네 분위기도 파악해보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 건축 Tip

- ☉ 설계 초기단계에 충분한 의견제시를 할 것
설계가 끝나고 시공에 들어가면 설계변경이 쉽지 않다. 설계 초기단계에서 건축설계 전문가에게 충분한 의견제시를 해서 협의를 할 것.
- ☉ 외벽 면적을 줄일 것
겨울과 여름을 효과적으로 나기 위해서는 열전달이 일어나는 면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평면의 가로와 세로 치수를 비슷하게 하여 평면을 깊게 만들 것.
- ☉ 외장재 선택은 나중까지 생각할 것
목재보다는 대리석이나 석재, 타일, 스타코플렉스 등의 외장재가 관리비용이 적게 든다. 초기 투자비용이 증가하더라도 나중을 생각한다면 그 편이 더 저렴하다는 것을 기억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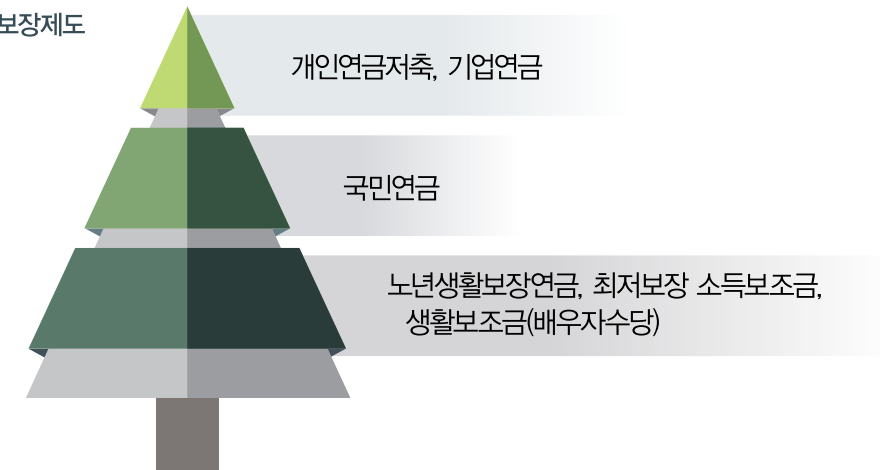
캐나다의 탄탄 연금 혜택이 행복이 되는 곳

글_ 제민주

올해 초 한 포털사이트에서 실시한 '이민 가고 싶은 국가' 설문조사 결과, 1위는 캐나다였다. 이는 캐나다가 실현하는 튼튼한 사회보장제도를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과다. 긍정적인 수입이 줄어든 시니어를 위해 다양한 제도로 노후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캐나다는 특히 연금제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행복한 노년기를 꿈꾸고, 그 꿈을 현실로 이뤄나가는 캐나다의 시니어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경제적 바탕 위에서 든든한 혜택을 만끽 중이다.



캐나다의 노인소득보장제도



시니어의 보장된 노후, 차이로 답하다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일반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시니어만을 위한 특화된 연금제도로 이곳만의 차별점을 완성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곧 캐나다가 우수한 복지국가로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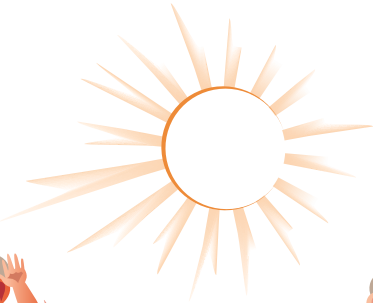
캐나다에서 노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들을 피라미드 구조로 볼 때, 가장 아래층에서 든든한 밑받침이 되어주는 '노년생활보장연금(OAS, Old Age Security Pension)'과 '최저보장 소득보조금(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생활보조금(Allowance)'이 바로 차이를 만들어낸 주역이다.

노인연금으로 불리는 '노년생활보장연금'은 18세 이후 최소 4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65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때 고소득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저소득층 시니어에 대한 배려를 확인할 수 있다. 노인연금을 받고 있지만 그 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시니어에게 지급되는 '최저보장 소득보조금'과, 노인연금 수령자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60~64세 사이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금' 역시 최소한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그 몫을 다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시니어 복지의 기틀을 마련한 국가들의 장점을 이상적으로 조화시킨 캐나다는 이 세 가지 연금으로 황혼기의 여유를 보장한다. 이를 수령할 경우, 독거노인은 1천 달러, 부부는 1천 5백 달러 정도의 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시니어를 위한 다채로운 시설 확충

선진국이라면 고령화라는 숙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캐나다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선택한 카드는 바로 요양 시설인 '고령자센터'의 확충. 넓은 국토를 가진 캐나다 어디서나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만날 수 있는 건 고령화문제에 대비한 캐나다의 앞선 준비 덕분이다. 연금제도를 통한 경제적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문화적 혜택을 제공해 가정 내에 고립되기 쉬운 시니어들이 서로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교양강좌를 듣고, 생활 상담과 식사 서비스까지 두루 받으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고령자센터는 지역 내 노인단체라면 자치적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센터 근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빠지지 않는다. 소요비용을 충당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가가 시니어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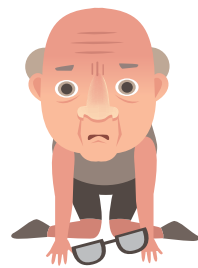
캐나다에서는 "정부보다 훌륭한 효자는 없다"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로 누리는 복지의 기쁨이 황혼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내건 캐나다는 이 혜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효자' 노릇을 제대로 하는 중이다.



여름철 일사병과 열사병 주의보



글_ 조주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름철, 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환들

다시금 여름이다. 온도가 가장 높아지는 한 여름에는 열 관련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평소의 4배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열 관련 질환으로는 열부종, 열실신, 열경련, 열피로(일사병), 열사병 등이 있으며 일사병과 열사병은 이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 손꼽힌다.

일사병은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어 생기는 질환으로 보통 체온이 40℃를 넘지 않고 의식변화가 생기지 않는 질환을 말한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열사병은 체온이 40℃를 넘으며 의식변화가 생기는 조금 더 심각한 열 관련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열로 인하여 피부 혈관이 확장되어 손발이 붓는 열부종과 고령자나 온도변화에 미처 적응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생기기 쉬운 열실신,

활동적인 움직임 후 종아리나 어깨 등의 근육에서 경련과 통증이 일어나는 열경련 등이 여름철 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다.

열부종의 경우는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개선된다. 열실신의 경우도 일시적으로 의식이 나빠지거나 일어날 때 어지러운 증상이 동반되기는 하지만 수분섭취를 하면서 안정을 취하면 서서히 호전된다. 열경련은 흘린 땀의 양에 비해 전해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기 쉬운데, 이때는 해당 근육을 스트레칭한 후 휴식과 함께 전해질을 섭취하면 호전될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질환, 일사병과 열사병

일사병은 열 관련 질환 중 가장 흔한 형태로 고온 환경에서 수액 보충이 원활하지 않을 때나, 장시간 땀을 많이 흘리는데 물만 마실 경우 주로 발병한다. 피로, 기력 저하, 어지럼증, 두통, 구토, 근육 경련 등이 동반되며, 심할 경우에는 갑자기 일어날 때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땀을 심하게 흘리지만 체온은 40℃ 미만이라면 일사병으로 진단한다. 하지만 일사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

열사병은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응급질환으로 분류된다. 체온이 40℃ 이상이며, 대체로 중추신경계 이상 소견이 함께 나타난다. 열사병은 한여름 수일 동안 고온 다습한 환경에 노출된 고령자, 또는 만성질환 환자에게서 발병 위험이 높다. 며칠에 걸쳐 발병하는데 흔히 열이 오르면서 땀은 나지 않고, 의식변화가 생긴다면 열사병의 주요 징후이니 의심해야 한다. 심각할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섬망, 발작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환각, 움직임의 부자연스러운 증세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 변화 여부를 살펴 일사병과 열사병을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료방법

일사병의 경우에는 의식이 뚜렷하고 활력 징후가 안정되어 있는 편이 많다. 이때에는 탈수나 구토 증세가 없다면 서늘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며 물을 마셔주고, 필요하다면 소금 등으로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것도 좋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수 시간 내에 증세 호전이 없을 경우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열사병은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온에 노출되어 그로 인한 의식 변화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냉각 요법을 실행해야 한다. 확실한 치료법은 냉수에 들어가 몸의 열을 낮추는 것인데, 이때 침수가 불가능하다면 미지근한 물이나 혹은 찬물을 뿌리면서 수건이나 부채로 바람을 만들어 열을 증발시켜야 한다. 이동 중에도 피부에 물을 묻힌 후 부채질 등으로 증발을 유도해야 한다. 차가운 물수건이나 얼음팩을 큰 혈관이 지나가는 목, 겨드랑이, 넓적다리 부근 등에 대는 것도 좋다. 단, 약 5~10분 간격으로 체온을 확인하여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열 관련 질환은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상상태를 점검하고, 가볍고 헐거우며 바람이 잘 통하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운동 시에는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을 섭취하고, 서늘한 휴식장소를 확보하며, 땀은 바로 닦고 모자는 자주 벗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기온이 높아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조심해야 한다.

Tip 일사병과 열사병의 예방 치료

예
방

- 환경에 적절한 옷 입기
- 운동전 미리 수액 보충
- 갈증이 있기 전에 물 마시기
- 아침 일찍 혹은 석양에 운동하기
- 기상상태 점검

치
료

- 시원한 그늘로 이동, 옷 벗기기
- 얼음팩(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물 뿌리기
- 얼음물 침수 혹은 증발 냉각
- 병원 치료

은퇴자를 위한 절세 계획

글_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28



은퇴생활을 시작한 주연금 씨는 요즘 들어 부쩍 재산을 축내지 않고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특히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세금에 대해서도 걱정이 늘었다. 주연금 씨가 알아두면 좋을 절세계획을 확인해보자.

첫 번째. 상속계획 세우기

상속이 일어나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나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다. 따라서 은퇴자들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미리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먼저 상속세는 배우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10억 원, 배우자가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5억 원까지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금액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의 비율로 법정상속지분을 정하고 있다. 물론 유언에 의한 공증이나 협의분할 때 이 지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분배 과정이 비합리적이면 유류분청구 같은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재산이 위 금액을 초과할 때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 이때 주의할 것은 증여시점이 늦으면 증여행위가 무효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그 전에 재산이전을 끝내야 세금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두 번째. 골고루 증여하기

특정자녀에게 재산을 과도하게 증여하면 앞에서 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증여하는 것이 좋다. 세법은 배우자 6억 원, 성년자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기타친족 1,000만 원을 증여재산공제액으로 정하고 있다. 물론

매번 증여할 때마다 이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기준이다. 예를 들어 두 자녀와 며느리·사위, 네 명의 미성년자 손주가 있는 경우 10년 동안 총 2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두 자녀는 각각 5,000만 원, 며느리와 사위는 각각 1,000만 원, 네 명의 손주는 각각 2,0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출금이 있는 부동산을 소유했다면, 빚과 동시에 이를 증여할 수 있다. 이때는 증여세가 줄어드는데, 증여재산가액에서 빚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아파트에 1억 원의 빚이 들어 있다면, 2억 원에서 1억 원을 차감한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물론 빚은 유상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하기

은퇴자가 보유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언제든지 처분해도 비과세가 적용된다(9억 원 초과주택은 일부과세).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대부분 세금문제는 없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와 집을 합치면 주택 수가 2주택이 되므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세법은 노부모 봉양을 장려하기 위해 먼저 처분한 주택은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자녀가 보유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비과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10년 이상) 만료 전에 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29

은퇴자를 위한 돋보기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본인 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소비성 지출 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이익이 된다. 씬씬이를 줄이고, 자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용기를 수료 받은 사람들

글_ 제민주

하나의 끝은 무언가의 시작과 맞닿아 있다. 그건 새로움을 향한 출발선이 되는 셈이다. 은퇴 역시 마찬가지다. 긴 시간 이어진 하나의 익숙함이 끝나고,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질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들은 은퇴금융아카데미를 통해 새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과 그 희망을 실현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



42명이 거둔 유종의 미, 웃음 가득한 수료현장

지난 5월 11일 은퇴금융아카데미 부산지사 수료식이 국제금융센터 25층 연수실에서 열렸다. 6주간의 과정을 성실하게 마친 수료생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밝았다. 금융교육 90분, 생활정보교육 90분으로 총 3시간가량의 교육을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한 사람들. 꾸준히 강의에 임했던 수료생들은 공사 사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으며 함박미소를 보인다. 마치 교단 위로 상을 받으러 올라가는 학생처럼 그들은 설레면서도 보람찬 표정이다. 교육 이수를 기념하는 증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수료증, 그건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선물과도 같았다.

30



Interview1

준비한 만큼 기대되는 미래, 그 시간을 꿈꿔요 - 석경화 씨(47세)

“금융업에서 일을 했어요.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단계고요. 보다 계획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고 싶어 이렇게 은퇴금융아카데미의 문을 두드렸어요.”

50대로의 진입을 앞둔 석경화 씨는 고민이 많은 시기를 보내는 중이었다. 분주한 직장생활이 일상이었던 그녀에게는 오히려 쉬는 날은 몸이 근질근질한 시간일 뿐이었다. 아카데미에서 금융교육을 들으며 모르던 부분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그 내용을 토대로 은퇴 후 도전할 부분들을 계획하고 싶다고 말한다. “주택연금에 비롯한 각종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됐어요. 부동산 분야에 대해 도움을 얻을 수도 있었어요. 함께 강의 듣던 분들을 둘러봤는데 다들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라는 숙제를 안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석경화 씨의 모습은 노후를 대하는 꼼꼼한 태도를 엿보게 했다.

“여행에 대한 내용도 강의시간에 들을 수 있었어요. 듣고 나니 훌쩍 떠나고 싶어졌어요. 여유롭게 한 달 정도 제주도에 다녀오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혼자서요.(웃음)”

혼자만의 여행을 꿈꾸며 소녀처럼 웃는 석경화 씨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다. 은퇴 후는 또 다른 시작을 향한 아주 설레는 시간이라는 것을.

31

Interview2

나이보다 훨씬 더 젊게, 건강하게 살래요 - 손봉희 씨(83세)

오랜 교육공무원직을 끝내고 은퇴생활에 들어간 손봉희 씨. 그녀는 100세 신문을 통해 은퇴금융아카데미 소식을 알게 되었다.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시니어들의 모습을 기사로 접하며,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더니 오히려 사회생활에 대해선 모르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걸 이번 강의 덕분에 알게 되었죠. 현명한 투자방법에 대해 배웠는데, 부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노하우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이라더군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손봉희 씨는 한 해 한 해 더해가는 나이로 무언가 도전하기에 망설여진다는 생각은 그저 기우일 뿐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열정이 가득 충족되어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며 만족스러워 했다.

“은퇴금융아카데미에서 지난 4월에 출시된 내집연금 3종세트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들었어요. 저는 3년 전부터 주택연금을 받고 있지만 주변에는 아직 모르는 지인들이 많아요. 내집연금 3종세트의 매력도 알리고, 유익한 강의도 들을 수 있는 은퇴금융아카데미 홍보도 이어갈 생각이예요.”

누구보다 활기차고 즐겁게 내일을 준비하는 손봉희 씨, 그녀의 유쾌한 노후가 기대된다.



‘HF 사랑의 집’ 사업, 취약계층 120여 가구 지원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4월 22일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이사장 남상오)와 2016년 ‘HF사랑의 집’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HF사랑의 집’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 장판, 난방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공사는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8개월간 120여 가구에 2억 4,000만 원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공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보금자리 봉사단’이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공사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내집연금 3중세트, ‘예약상담제’와 ‘금융기관 사전상담’ 운영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4월 25일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의 1석 3조 효과를 가진 내집연금 3중세트를 출시한 후, 많은 고객들의 문의를 받고 있다. 이에 보다 편리한 상담과 신청 접수를 위해 ‘예약상담제’와 ‘금융기관 사전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예약상담제’는 장시간 대기할 수 있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상담시간을 지정하고 약속한 시간에 상담을 받는 제도다. 가까운 지사 및 은행 거점점포에서 방문상담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할 경우 공사 콜센터(☎1688-8114)나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금융기관 사전상담’은 사전에 가까운 은행에서 기본사항 상담 및 제출서류 안내를 받은 후 공사 지사에 신청 접수를 함으로써 고객 방문횟수를 줄여 보다 신속하게 가입처리를 돕는 제도로, 사전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12개 은행* 점포를 방문하면 된다.

*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전북, 광주, 제주

모기지신용보증 지원확대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4월 28일부터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도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지원하고 있다. 모기지신용보증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3억 원(전용면적 85㎡) 이하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자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 시 보증도 함께 신청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보증 지원확대로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대출금액 1억 4,000만 원, 만기 10년)을 이용해 다세대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400만 원의 이자절감 혜택이 있어 저소득서민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주택담보대출 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상품

2016년도 릴레이캠페인 실시



당당히 주택연금을 추천해주세요. 가입 유치 시 사은품을 드립니다.

- 내용 : 주택연금 가입 고객이 주위 분들께 주택연금을 추천 ⇨ 추천 받은 고객이 주택연금 가입* ⇨ 추천인에게 사은품 증정(4만 원 상당)

* 가입 시 공사 담당직원에게 추천인 통보(내집연금 3중세트 중 1, 3종에 한함)

- 기간 : 2016. 4. 25 ~ 11. 30*(가입일 기준)

* 예산 소진 시 캠페인 조기 마감 가능(선착순 50명)

고령자, 7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전용출국통로 이용 가능

오는 7월부터 70~79세 고령자도 전용출국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전용출국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기준을 ‘80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전용출국통로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이나 유급자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시해 이용대상임을 확인받고 출입증을 받거나 전용출국통로 입구에서 출입국우대카드를 보여주면 이용 가능하다. 또한 움직이기 어려운 교통약자가 인천공항을 이용할 시, 도착할 때부터 항공기를 탈 때까지 도우미가 함께 다니며 도와주는 ‘원스톱서비스’도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원스톱서비스는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하거나 공항에 설치된 전용전화기(헬프폰)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인천국제공항 콜센터 ☎ 1577-2600



다양하고 알기 쉽게 바뀌는 전철역 정보



시니어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리한 도시철도 이용을 위해 전국 도시철도역의 이동편의 정보를 개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6월부터 순차적으로 철도운영자 누리집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이로써 역사 이용 전에 역내 편의시설,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의 최적 동선, 장애인용 화장실, 발빠짐 사고예방을 위한 승강장과 열차 간격 등을 그래픽 자료로 알기 쉽게 이해하고,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과 연계한 비상 시 최적 대피경로 지원 등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을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 1599-0001 www.molit.go.kr

CULTURE EVENT

주택연금을 읽은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다음호에 반영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의 구독을 희망하시는 단체는 이메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e-mail : silver100@hf.go.kr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 중 10분을 추첨하여 공연관람 기회를 선물합니다. 공연은 오는 7월 28일에 열리는 부산시립합창단 ‘써머판타지’입니다. 1970년대 전설의 가수 아바(ABBA)의 맘마미아 모음곡을 비롯해 우리 귀에 익숙한 뮤지컬 컬렉션 등을 들으며 한여름밤의 즐거운 음악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 좌석은 지정석이며, 1인 2매 제공됩니다.

▶ 공연정보

일시 : 2016년 7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오늘의 열정, 내일의 설렘

글_ 제민주

2011년 12월 주택연금과의 첫 만남을 시작한 강표노 씨는 주택연금의 성장을 꾸준히 지켜본 증인이다. 약 5년의 시간을 함께하며 그는 주택연금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모습에 누구보다 기뻐했다. 올해 2월, 3만 번째 가입자가 배출되었다는 소식에는 자신의 경사처럼 행복해하기도. 그는 자신이 주택연금을 만나고 받은 행복과 여유를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누리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살고 있었다.



강표노 고객

● 부산 남구복지관의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표노 씨는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쁜 나날을 보낸다. 그는 이곳에서 다방면의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고, 또 주택연금도 알리며 또래 시니어들과 보람찬 일상을 채워가고 있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유명 강사의 교육을 들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매일 1과 이상의 강의는 꼭 수강하고 있어요.” 24시간을 쪼개 밖에서는 강연을 하는 선생님이로, 집에서는 열성적인 학생으로 분한다. ‘나눔’과 ‘배움’을 알차게 실현하는 그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다 못할 일들이죠. 그래서 내일이 더 기대돼요. 아침이 오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라며 순수한 열정을 드러냈다.

강표노 씨는 ‘만능꾼’이라고 불려도 손색없는 이력을 갖췄다. 웃음치료사 2급 자격증과 노인재활심리상담사, 치매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건강대학, 노인지도자대학, 효(孝)사관학교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했다.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대학이라는 대학의 문은 다 두드려본 것 같아요.” 끈기와 애정이 바탕에 없으면 쉽게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은퇴 후 그가 이 길을 걷게 된 데에는 아내의 영향이 컸다. 갑작스레 건강이 약화된 아내의 담당 의사는 ‘아내 건강 회복은 남편에게 반 이상 달렸다’는 말을 전했다.

“아내를 위해 내가 변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어색했지만 아내가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도우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죠. 이것저것 배워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었어요. 그러다보니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게 됐고요.”

한창 일을 할 때에는 가족의 행복이 유일한 목표라 여겼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주변을 살피는 여유를 주었고, 비슷한 연령대의 고민을 듣고, 또 도우며 많은 보람을 선사했다. 그런 마음은 시니어를 위한 복지활동과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졌다.

“사비로 어깨띠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웃음) 스스로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시니어들에게 제가 알고 있고 배운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멀리서도 ‘저 사람에게 물어보자고 할 수 있는 지 원군 같은 존재로요.’

바쁜 일과 속에서도 그는 매일 아내와의 산책을 즐기고 있다. 강표노 씨의 삶이 여기까지 이어진 데에는 분명 아내라는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에게 새로운 출발선이 되어 삶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멈출 줄 모르는 그의 열정이 정한 다음 목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따뜻한 목표를 향해 도전을 시작하는 그의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은퇴금융 아카데미 수강수기 공모

은퇴금융 아카데미
수강사례와 체험을 홍보하고
공유하기 위한 수기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자격 | 은퇴금융 아카데미를 수강하신 분 또는 수강 중인 분

| 수기내용 | 은퇴금융 아카데미 수강 경험담 및 교육내용 활용 사례 등

| 수기형식 | A4 용지 한 장 이내(1,000자 이내) 작성

| 공모기간 |

수기공모	2016. 5. 20 ~ 6. 10
수기심사	2016. 6. 11 ~ 6. 17
당선작 발표	2016. 6. 21

| 접수방법 | ① 우편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주택연금부 수기공모 담당자 앞, 우편번호 48400
② 전자우편(silver100@hf.go.kr)
③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접수

| 심사기준 | 진솔성, 공감성, 내용의 적합성, 홍보가치, 분량준수 등

시상내용	구분	최우수상
	인원	20명
	상금	각 5만 원
	합계	총 100만 원

* 제세공과금 기타 비용은 수상자가 부담
* 당선자는 개별통보 해드리며, 별도 시상식은 없음

| 유의사항 |

-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홍보와 관련하여 수상작을 5년간 온라인(인터넷 게시, 복제, 전송 등)과 오프라인(복제, 배포, 전시, 홍보책자, 포스터 등)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2차 저작물로 수정하거나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료(2차 저작권 포함)는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대체되며, 수상과 동시에 수상자는 별도의 허락 없이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수상작의 사용을 원치 않는 경우나 모방작 등 저작권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 비수상작에 대해 2016년 6월 30일까지 응모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0일 내에 반환하며, 반환을 위한 일체의 비용은 반환을 요구한 응모자가 부담합니다.

